◇국보 제119호 '연가칠년명 금동불상'. 전체높이 16.2㎝인 이 불상은 '각명한 수법', '찬란한 금색', '조성명기' 등을 이유로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꼽힌다.

"고구려 불상 '연가불' 539년 조성"

장충식 교수 주장…불상양식-전래경로 등 연구

명문이 남아 있는 고구려 불상으로 유명한 국보 제119호 연가칠년명금동불상(延嘉七年銘金銅佛像, 이하 연가불)에 대한 '조성연대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충식(동국대) 교수는 '연가칠년명금동불상 재고'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연가불은 539년(고구려 안원왕 9년) 평양의 동사(寺)의 주관자(현재의 주지)인 승연이 그의 무리 40명과 함께 제작한 제29 인현의불"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63년 7월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발견된 연가불은 전형적인 고구려 불상 양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광배 뒷면에 조성 이유, 시기, 화주, 장소 등을 기록한 명문이 남아 있어, 발견 당시부터 미술사학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 명문에서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말해주는 '연가'라는 연호가 현존하는 어떤 고문헌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단지 고구려의 연호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 어떤 왕이 사용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연가 칠년'에 대해 '419년(장수왕 7년)'에서 '599년(영양왕 10년)'까지 다양한 '설'들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서 장 교수는 명문을 해석하고 문헌 연구에 치중해 연가불의 연대를 추론했던 그동안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중국·일본 등의 불상 양식을 비교하고 또 불상의 전래 경로와 시기 등을 토대로 '539년 제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장충식 교수

장 교수에 따르면 연가불은 '여원시무외'의 수인을 하고 있으며, 높은 육계에 불꽃문양의 광배 그리고 여섯 입의 연화대좌 등은 양식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법의 측면에서 볼 때, 무 자르듯 시원하게 툭툭 쳐 내려간 느낌이 들 정도로 능숙한 솜씨가 돋보인다.

따라서 장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조각 기술이 정착하기까지는 불상 전래로부터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419년은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지 50년 미만의 시기인 만큼, 그 시기에 예술성이 뛰어난 불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강성 좌야미술관의 '태화육년명청동불입상'에서 연가불의 양식상 시원(始原)을 찾고 있는 장 교수는 "청동불입상은 불꽃문양의 광배며 불상의 크기에 비해 커다란 손이나 거대하게 강조된 육계, 연화대좌 등에서 연가불과 유사하다"며 "고구려는 중국 북조의 불상 양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불입상은 연가불보다 다소 앞선 불상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새로운 불상양식이 우리 나라에 전래되기까지는 대략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미술사학계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연가'라는 연호가 고구려 장수왕 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의 '417년 제작설'과 문명대(동국대) 교수의 '479년(장수와 67년) 제작설'에 힘을 실어왔다. 김 명예교수의 경우 "장수왕 7년이 기미(己未)년이고 불상에도 '연가'라는 글자만 덧붙여졌을 뿐 '칠년 기미(七年 己未)'라는 명문이 있고, 또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왕의 '영락(永樂)' 연호에 이어 '연가'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가불의 '417년 제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일 오전 9시 40분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한국 미술사의 재해석'을 주제로 열리는 동악미술사학회 창립기념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날 '한국 목조건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김도경·고려대 강사), '일재 신한평의 화경'(이원복·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백제와당 양식의 변천과 그 유형-소문단판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김성구·국립광주박물관장), '조선 백자 태항아리의 성립과 발전'(윤용이·원광대 교수),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건립에 대하여'(김동현·동국대 교수) 등도 소개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깨어나라

미국내 일본불교 현주소

'깨어나라(wake up)'는 미국에서 일본불교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 미국에서 대표적인 선사로 꼽히는 다이도 로리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선산사원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는 출가승의 수행상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가자들이 생활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원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인 △팔문법(Eight Gates) △정행(Right Action)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팔문법'은 매일 7~10시간의 좌선, 염불, 공양, 행선, 울력 등 직관적 수행과 육체·감성적 실천이 병행된 선산 사원 특유의 수행법이다. 또 '정행'이란 죄수 교화, 환경 보호, 에이즈 퇴치 등의 실천적 보시행을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 뉴욕주립교도소의 요청을 받아 1984년부터 시작한 '죄수교화 프로그램'은 교도소에서 죄소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문으로 이끌고 있다. 또 92년부터는 환경교육 및 보호, 자원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깨어나라'에서는 〈생활의 도(道)〉(1979년), 〈선의 팔문(八門)〉(1988년) 〈살아있는 것의 불성〉(1996년) 등 로리 스님이 펴낸 불서 20여 권의 서평과 '원과 바위' '무명석(無明石)' '바위와 물' 등의 선화(禪畵) 8점도 볼 수 있다. 또 △전자잡지 〈Mountain Record〉을 읽고, △불교음반 '드림런드'를 들을 수 있다. 이 음반은 불교를 주제로 한 곡들을 발표하고 있는 대중음악그룹인 '다이까조(Daikajo)의 최신 곡들로, 컴퓨터 음악파일로 게재되어 있어, 불자 네티즌들이 언제라도 로딩(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zen-mtn.org/

불문硏 '21세기 불교예술의 향방' 세미나

"전통선율 찬불가 창작" 박범훈 교수
"불교미술의 정신 이해" 홍윤식 교수
"연극소재로 불교 최적" 김흥우 교수

16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불교문화. 21세기에도 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불교문화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이 13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21세기 불교예술의 향방'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자리였다. 음악·미술·연극 등 각 분야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추론한 이 세미나에서 찾은 해답은 바로 "전통의 정신을 지키며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수 있는 불교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불교음악의 현재와 미래-승려들의 찬불가 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범훈(중앙대) 교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스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찬불가는 율(律)보다는 문(文)을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이것들이 불교와 거리가 먼 찬송가풍의 찬불가를 생성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또 "스님들의 찬불가 운동이 60~70년대 이르러서도 찬송가풍의 찬불가 창작으로 이어진 이유는, 스님들이 찬불가의 율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서양음악 작곡가들의 전통불교 음악적 소양 부족의 결과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찬불가의 창작은 초창기 스님들의 찬불가운동 정신과 전통 불교음악의 선율이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교미술의 오늘과 미래'를 분석한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는 언어불급의 그 진체(眞諦)를 표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예술 세계를 펴왔다"며 "불교 미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형상에 대한 미술적 관찰과 내용에 대한 종교적 관찰을 종합함으로써 전면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 역시 단순히 형상 보존보다는 성보에 담긴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을 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김흥우(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연극개발 소재는 불교소재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불교연극의 진흥을 위해 "불교의례 번역 및 통일, 찬불가를 작곡하고 안무할 수 있는 인력의 배양, 불교대학내 불교예술학부나 전통예술학부 신설 등을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화도 전등사의 대조루, 설악산 신흥사의 보제루, 경남 양산 통도사의 설법전 등과 같이 경내 공간을 연극인에게 제공, 불교의례를 불교의식극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고려 개경 유명사찰만 3백개"

박명진 교수 논문 발표

도선(827~898) 스님의 예언대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불교진흥'을 당부한 불국정토 고려. 이 나라의 첫 수도 개경(현 개성)에는 몇 개의 사찰이 있었고,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박명진(숙명여대) 교수는 6일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숙명여대 대학원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고려 전기 개경 절의 위치와 성격'을 발표하고, "전성기 때는 개경 성내에 유명한 절만도 300개가 있었으며, 그 중 현재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 사찰들은 종교적 기능만 수행했던 게 아니라 정치·군사적 기능까지 맡았고, 개경 밖의 절들도 국방이나 교통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신안식(명지대) 교수의 '개경의 성곽정비', 홍영의(국민대) 교수의 '개경의 구조' 등도 발표되었는데, 신 교수는 "서기 896년 궁예의 명령으로 왕건이 송악에 쌓았다는 발어참성이 일부 개축을 거쳐 황성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발어참성과 개경 황성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개경을 입체적으로 해부한 이번 학술회의는, 97년 '개경사연구반'을 만들어 개경을 집중연구해 온 한국역사연구회가 4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불교학술연구 발표

한국불교학회(회장 목정배)는 20일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3회 춘계전국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교학'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등 세 분과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대회에는 '하택신회의 선사상 연구'(유진), '불교와 불교학'(조현춘), '붓다의 수명 포기의 원인에 관하여'(안양규), '석가모니 붓다의 인종적 기원'(조준호), '니시타니 케이지의 불교적 허무주의'(이찬수) 등 논문 31편이 발표된다. (02)2260-3121

불이상 후보자 공모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도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제15회 불이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연구·실천·장학·출가면학 등으로,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5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구 분야는 대학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실천 분야는 신행과 포교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장학분야는 대학원 불교학 관계 전공자가 대상이다. 접수 마감은 6월 3일. (02)3411-6167~8

한국선학회 월례발표

한국선학회는 20일 1시 30분 북한산 진관사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가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월호(쌍계사 중강) 스님과 김방룡(영산원불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또 양형진(고려대) 교수는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을 발표하고 원택(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스님과 박영재(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02)2260-3135

연꽃마을 세미나 개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 각현)은 19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에서 본 효의 개념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가정윤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의 '불교의 효-개념적 이해와 사회적 구현'을 비롯해 오석원(성균관대) 교수의 '유교의 효 사상과 현대사회' 등이 발표된다. (02)2203-3677

티벳 解脫의 書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1200년 전 티벳에 불교를 전한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요약 전기〉, 그가 가르친
〈마음 알기 요가〉, 또 다른 스승 파담파 상게가 남긴
〈유언적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당신에게 '이몸 이대로' 해탈하는 법을 전해준다.

이상한 일이다. ≪티벳 해탈의 서≫를 읽고 있으면 문득 주위가 밝아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해가 하나 떠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빛은 외부에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방광(放光)임이 분명하다. 칼 융은 이 책에서 '마음'을 '에너지의 변압기'라고 아주 적확한 표현을 하였다.

— 정찬주(소설가)

이 책은, 새벽 빛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하여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 구도 여행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 에반스 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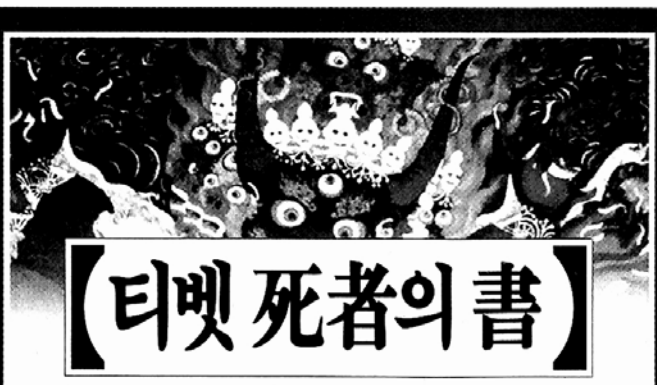
◀신간

파드마삼바바 지음/에반스 웬츠 편집/칼 융 해설/유기천 옮김
양장본/432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스 739-8791/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대구점(053)943-4824,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부산점(051)294-8545, 안양점(0343)466-2208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티벳 死者의 書】

류시화 옮김
양장본/525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사후세계 —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혀주는 천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칼 융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격찬한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궁극의 책, 명상의 기본서!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해탈의 서≫.

"… 이 책은 언제까지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정신세계사